

2월의 사슴 사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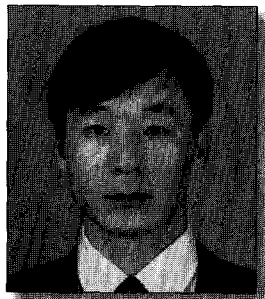
1. 수사슴의 사양관리

보통의 엘크들은 2월하순부터 3월에 낙각이 많이 되지만, 2월이 되면 엘크 수컷의 경우는 영양상태가 양호한 개체나 혹은 유전적으로 낙각시기가 빠른 개체는 낙각이 된다.

낙각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은 이미 새싹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슴의 계절적인 특성은 번식뿐만이 아니라 사료의 섭취량 역시 계절적인 특징을 가지며 가을을 기점으로 줄어들어 급격한 체중감소를 가져오며 다시 봄철부터 사료의 섭취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때부터



▲ 번식계절동안 소모된 체력의 보충을 위해 격리사육이 바람직하다.



김 상 우 축산연구사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발부)

사슴은 자신의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와 녹용생산 및 체중의 증가를 위해 가장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게 된다. 일부농가에서는 1월부터 벌써 농후사료를 늘려주어 좀더 일찍 낙각을 유도하고 있다. 농후사료를 늘려주는 방법은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어 서서히 늘려주는 방법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아직까지 번식에 공용된 종록을 합사하여 사육하는 농가는 격리사육이 바람직하며 번식계절동안 소모된 사슴의 체력을 보강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격리할 사육시설이 없어 종록을 번식에 사용되지 않은 무리와 함께 합사를 하는 경우 종종 일시적으로 변화는 사회적 서열 다툼으로 투쟁이 발생하여 사고축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격리칸이 없는 농가에서는 낙각 후에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용의 성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17%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큰소사료나 중송아지시료를 급

여하는 농가에서는 사슴전용 사료나 단백질 수준이 높은 사료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암사슴의 사양관리

암사슴의 경우는 포유기 동안은 영양소의 요구량이 높으나 이유후부터는 분만시까지 체중의 변화 및 사료의 섭취량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암사슴들도 물론 사회적 서열이 있어 과비축과 허약축이 발생하므로 임신중기부터 세심한 관찰을 실시하여 분만시 어미사슴의 허약에 의한 자육의 체중감소나 과비로 인한 난산 등을 미리부터 막아야 하겠다.

사슴을 사육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들도 생각해볼 시기이다. 특히 구충을 하지 않아 급여한 영양소들의 낭비나 2차적 질병의 발생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군에 대한 구충도 이 시기에 한번 실시해 주어야 한다. 구충제의 선택은 임신한 사슴에도 투여할 수 있는 것이 있음으로 잘 선택하여 투여하면 되겠다. 경구용으로 사료에 혼합하여 투여하는 구충제를 먹일 때에는 특히 세심한 관찰을 해야하며 사조의 길이가 짧은 사슴사에서는 사슴을 2그룹으로 나누어 전 두수가 구충이 되게 주의할 기울어야 한다. 또한 겨울철 동안 발굽이 너무 많이 자라서 거동이 불편한 사슴은 마취를 해서라도 발굽관리를

해주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시켜야 하겠다.

3. 육성록의 사양관리

육성록의 경우는 겨울동안도 다른 계절보다는 체중의 증가율이 낮지만 계속해서 증체를 하며 다음 뿔 성장과 번식에 대비하여 고평양 사양을 해야한다.

사슴의 성성숙이 보통 16개월령으로 알려져 있지만 번식계절이 왔을 때에 적정체중에 도달해야만 번식률이 높다. 적정체중에 도달 못할 시에는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공태기간을 가지게 되므로 미리부터 세심을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수컷 육성록의 경우는 일생에 한번밖에 자라지 않는 육경과 첫뿔의 발생시기가 되므로 겨울 동안의 육성록 관리의 일생 동안의 뿔 성장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일반적으로 가축의 발육은 골격, 근육, 지방의 순으로 발육이 진행되며 육성록의 시기는 골격과 근육의 발달 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시기에는 골격과 근육의 발달을 위해서 에너지원보다도 단백질의 요구량이 많은 사료의 급여가 요구된다. 성록에 사용하는 농후사료보다는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농후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료의 총 섭취량은 성록보다 적지만 단위체중당 사료섭취량은 육성록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양육**